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라는 말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도 자주 들어 보았을 법한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이 이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편견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들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곧 전체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대치시켜 놓고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이들이며 가식적이다라고 말해버리기까지 하니 (일반화의 오류), 이 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부류에 속

기독교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인 측면이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말들에 더 많은 비중을 신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적대 관계를 설정해 놓은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릴 수 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글은 유대인들의 역사 자료들에 근거해서 이 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 1 *

사두개파

사두개파라는 말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사독의 후예들로 구성된 혈연공

동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파(Sect)라는 것은 공통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두개파가 대부분 신분이 높은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 안에서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평민 귀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같은 사상적인 기반을 공유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두개파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좋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

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파의 주요 활동무대는 산헤드린이었는데, 이들은 스스로 귀족가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평민귀족(지파의 주장 참조). 그러나 그러한 자기 인식은 결국 평민들과 동떨어진 기득권층으로 자신들을 계도화시켜버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두개파의 철학과 사상에 동조했습니다.

❖ 평민귀족(지파의 주장)

포로기 이후 왕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재조직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나 정치조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때에 고대 이래로 당시 까지 변함이 없었던 가문제도를 새로운 정치조직의 토대로 삼게 됩니다. 이미 포로기에 왕권제도가 없어진 후에 가문(지파)의 대표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총독과 담판을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평민귀족들이 됩니다. 이들의 역할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사제가 문은 더이상 비(非)사제가문들의 주장들을 자신들의 하위계층으로만 여길 수 없게 됩니다. 평

민귀족들의 도움없이는 사제계층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제한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 간의 동맹을 맺으며 만든 제도가 산헤드린이라는 제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최고 산헤드린에는 레위인과 사제들, 그리고 가문의 주장(평민귀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막 15:43에는 존경받는 공회원(εὐσχήμων βουλευτής)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요셉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 공동체의 원로였고 대단한 유력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는 일에 나섰으나 아무도 그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대단히 명망있는 평민가문의 주장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당과 같은 종교적인 이익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소규모의 폐쇄적 공동체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와 같이 소규모의 공동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예를들어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요세푸스의 당시 약 5만명-8만명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사제와 레위인들은 약 1만8천명이었고, 에세네파의 경우 약 4천명의 공동체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 6천명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후 180년경에 이르러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규범적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년간의 수련기간을 거쳐야 했고 이 수련기간동안 엄격한 정결규정들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를 삼등분하여서 공부와 기도와 수공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류층보다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업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아도 이들의 사회에서 상층계급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그리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유대문헌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성원들 때문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흔히 혼동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시작

바리새파 운동은 사두개파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났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서의 문자적 의미에 따라서 토라의 정결 규정들은 제사장들이 지켜야할 규정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할 레위기의 정결 규정들과 음식 규정들을 제사장의 일상생활과 민족 전체의 삶을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2차성전 시대판 만인 제사장설이라고도 부를 만큼의 혁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제의만 보장이 된다면, 유다 땅의 정치 지배 구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서약을 하고 안정적인 성전 제의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서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엄격

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성전 제의도 제의려니와 헬레니즘 문화에 의해서 헤브라이즘이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3 *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류층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대중들로부터의 인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율법학자

율법학자들로 불려지는 사람들을 주로 바리새인들과 많이 혼동하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 바리새파 신학과 사두개파 신학의 차이점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	기록된 율법(오경)+구전율법	기록된 율법(오경)
자유意志 vs 예정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밖에는 없다 (예정론).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예정 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선한 일들 을 하여야 한다.
사후세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인간의 삶에 따라서 영혼은 상과 벌을 내세에 받는다. 인간이 내세 받는 벌은 영원한 감옥(지옥)이며, 상은 부활과 중생 이다.	영혼불멸설은 거부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지, 부활과 중생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천사	존재인정	존재거부
레위기의 정결법	모든 유대 백성이 지켜야하는 법	제사장들과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 이 지켜야하는 법
성전제의 vs 회당과 율법	회당에 근거하고 있으며, 언약의 관계 는 율법의 준수로 유지된다고 본다.	유대백성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 이고 유일한 방법은 제의 라고 본다.
정치	하시딤의 영향을 받아 헤브라이즘이 종교의 순수성을 보장한다고 본다 (종교적 이상주의).	성전제의만 보장되면 어떤 정치체제와도 손잡을 수 있다 (세속적 실용주의).
메시아	기다림	기다리지 않음

율법학자들은 계층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지금 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듯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지금 율법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파들은 사회적 계층의 동질성 때문에 모여진 것이 아니라, 같은 신학,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이익 집단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 바리새파 신학과 사두개파 신학의 차이점 참조).

신약성서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으로 행 13장에 나오는 바나바는 율법교사에 속하였다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바울은 율법학자이며 동시에 바리새인들에 속하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유일한 무기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수

구약의 예언자의 역할을 신약 시대에는 율법학자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년 동안의 정규 연구과정을 거쳐서 율법학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랍비라는 말이 바로 이 율법학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율법학자(랍비) 참조).

성경 지식을 가진 소수

구약성경은 거룩한 문서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 율법학자(랍비)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혼동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의 알고 있는 것으로 따지고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군인, 상인, 제조업자, 날품팔이꾼 등 직업과 관련없이 율법을 연구하여서 율법학자들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과 개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문과는 상관없이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가르치는 능력으로 율법학자의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되

기 위해서는 정규 율법 교육기관에서 오랜간의 성경연구를 해서 소위말해서 학위를 받아야 하는데, 율법학자로서 종교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나이는 40세 부터였습니다. 형사소송 때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민사소송 때에는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리거나, 소규모의 사건일 경우에는 단독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로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위를 받는 40세 이전에도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학위를 얻은 이들에게만 랍비라는 칭호를 붙이게 된 때는 주후 1세기부터라고 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지만, 성경은 거룩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주어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소수였습니다. 물론 당대에 아람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배포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성경 지식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을 알고자하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주변에 모여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라는 사회적인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처럼 가문을 입증해서가 아니라,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가르치고 재판과 설교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바리새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바리새파 공동체에서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권위는 심지어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나무랄 수 있는 경지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㉞

구약의 예언자, 신약의 율법학자

신약시대의 율법학자들은 이제 구약시대의 예

